

투기 발본색원 큰소리 쳤지만... 소득 없이 끝난 LH 특검 논의

여야 3+3 협의체 첫 회의, 공직자 투기 근절 제도개혁 공감대 특검 추천방식 등 차후 논의키로...선출직 전수조사, 방식 이견

여야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 관련, 첫 회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각론에서는 별다른 접근을 보지 못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산불발' 글귀를 마음에 새겨 국민께 드린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3'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이번에 발본색원, 공직자의 투기 문화를 근절하고 제도개혁의 전기를 마련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특검의 추천, 규모, 기간에 대해서는 각 당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와 관련, 김영진 원내수석은 "특별법으로 하지는 안과 제3의 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관련, 김성원 수석은 "양당이 국조 요구서를 제출해 범위 등을 얘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금번 사태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내놓은 각종 재발 방지 대책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향해선 "대상과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오른쪽부터), 송기현 의원,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수조사·국정조사·LH특검' 추진을 위한 여야 실무협상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정 총리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해 "국민께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 확대 의심 아동을 즉시 분리해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철저한 아동학대

예방과 확대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 보호로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與 “추경안 오늘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여행업·공연·화훼농가 등 지원 확대...백신 안전성 믿고 집중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피해 계층의 어려움은 국회에서 추경 통과가 지연될수록 더욱 가중될 것이며, 야당은 부디 국민을 생각해 심의에 임해달라"

면서 "야당은 추경의 일자리 사업을 소위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사라진 근로 취약계층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시작과 동시에 사실상 개점폐업 상태였던 여행업, 공연·전시·이벤트업, 졸업과 입학 행사가 없어서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던 전국의 화훼농가, 그리고 등교가 어려워진 탓에 함께 쉬어야 했던 학교급식 농산물 관련 분야 등을 지원 업종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요양병원의 65세 이상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백신의 안전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다"며 "효능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불안해 말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직자 투기 수십건 접수...조사후 수사의뢰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지자체 등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연루된 투기사건 신고들이 접수돼왔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신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필요시 수사의뢰나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통해 관련된 공직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기존에 알려진 공직자 투기 의혹 이외에) 새로운 사건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수십건의 공직자 투기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집중 신고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시급히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토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부·이첩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이 해충돌 예방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최근 LH 등 공기업과 지자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불법 거래 의혹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위원장이로서 매우 죄송하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

‘패트 충돌’ 민주당 의원들 5월 26일로 공판기일 연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판 기일이 또 연기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민주당 측 변호인이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여 24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5월 26일로 연기했다.

민주당 측 '패트 충돌' 재판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변호인들은 지난해 12월 23일과 지난 1월 27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미뤘다. 거듭된 연기로 재판은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째 공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공직자 부패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 국회의원은 23일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최근 확인돼 국민들께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하고,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때문에 공직자의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정보가 누설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형석 의원은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보완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강화한 개정안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원천 차단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aT, 수산·식품·유통사업 확대 개선해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사업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진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aT를 상대로 "2021년 aT 사업예산 2조 2185억원 중 84%인 1조 8591억원이 농림사업인 반면 식품이 2658억원으로 12%, 수산이 936억원으로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사의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유통사업 실적도 저조했다. aT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2020년부터 본사업으로 '농산물 온라인 경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2020년 공사 온



라인경매 실적은 가락시장 한해 경매규모 4조원의 0.39%인 156억원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aT의 사업 추진 시스템은 영역간의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구조이며 농축수산물 가격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제적인 유통 지원사업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장의 생산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선제적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싼” “땡”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 가능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확정
- ▶ 매매 - 21억원, 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

“금” “매”

-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20층 중 8층, 사무실 전용
-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 코너, 전망 좋음, 주차 편리
- ▶ 매매가격 4억원 → 7,500만원
- ▶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6837-4700